방책 I : 마음을 바르게 하라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죄를 기다리는 언관(言官)[1]의 위치에서 천장만 쳐다보며 탄식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폐습을 고칠 근원을 깊이 생각한 나머지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삼가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전하께 올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통치(統治)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요, 둘째는 현명한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하는 일이요, 셋째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마음을 바르게 하여 통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것은 임금이 어질면[2] 어질지 않는 이가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3] 의롭지 않는 이가 없어서입니다. 옛날 임금들도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마음먹지

1 언관(言官): 간관(諫官)의 다른 말
2 어질다: 인(仁)을 순수한 우리말로 푼 것
3 의롭다: 의(義)를 우리말로 푼 것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통치한 때는 항상 적고 혼란한 때가 늘 많았던 것은 단지 임금이 자기 몸을 잘 수양하지 못하여 만방에 그 올바름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첫째로 들었는데,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뜻을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학문에 힘쓰는 것이요, 셋째는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큰 뜻 세우기

첫 번째의 '큰 뜻을 세운다고 한 것'은 임금의 의향(意向)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해지는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의향이 인(仁)과 의(義)를 실천하는 데 있으면 요순(堯舜)[4]이 될 수 있고, 의향이 인과 의를 빌려 겉으로만 실천하는 척 하면 오패(五霸)[5]가 될 수 있고, 의향이 즐거움과 욕심에 있으면 걸주(桀紂)[6]가 되며, 의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권세를 농락하는 신하를 불러들이게 되고, 의향이 한쪽으로 쏠리면 면전에서 아첨하는 선비를 모으게 됩니다. 의향은 그 효과가 빛에 있어서 그림자와 소리에 있어서 메아리 같습니다.

---

4 요순(堯舜): 성인으로 추앙하는 중국 상고대의 요임금과 순임금

5 오패(五霸): 춘추시대의 다섯 사람의 패자(霸者). 제(齊)나라의 환공(桓公), 진(晉)나라의 문공(文公), 진(秦)나라의 목공(穆公), 송(宋)나라의 양공(襄公), 초(楚)나라의 장왕(莊王)을 일컬음. 송나라 양공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기도 함.

6 걸주(桀紂): 폭군으로 알려진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걸왕과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

학문에 힘쓰기

두 번째의 '학문에 힘쓴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삼대(三代)[7]가 이미 멀어져 성스러운 왕이 나타나지 않아서 요순의 심학(心學)[8]은 끊어져서 전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도(道)[9]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만 아래에서 높지 못한 성현(聖賢)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후로 밝은 임금이 몸소 태평함을 이룬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모두 안으로 반성하는 학문[10]이 없어서 선왕(先王)[11]의 정치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의 자질을 지니고서 임금과 스승의 책임을 모두 맡고 계시니, 요순이 되려면 요순이 될 수 있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12]이 되려면 문왕과 무왕이 될 수 있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기

세 번째의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학(聖學)[13]이 비록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바른 사람을 좌우에 있게

---

7 삼대(三代): 중국 고대의 하(夏) · 은(殷) · 주(周)의 세 왕조

8 요순의 심학(心學): 요순과 같은 성인의 마음(일명 道心)과 관계된 학문

9 우리의 도(道): 유학, 여기서는 성리학이 도통으로 삼는 학문, 도학

10 안으로 반성하는 학문: 성리학을 말함

11 선왕(先王): 옛날의 성왕

12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문왕은 주(周) 왕조의 기초를 닦은 명군으로 이름은 창(昌)이며 무왕은 문왕의 아들로 이름은 발(發). 문왕이 닦아 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하여 은나라의 주왕을 쳐서 중원 천하를 통일함

13 성학(聖學): 성인이 되는 학문. 이황의 『성학십도』와 이이의 『성학집요』에 들어있는 말도 이 뜻이다.

한 뒤에야 잘못을 바로잡고 돕고 인도해 성스러운 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힘써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도학(道學)[14]을 강구하십시오.

해설

이 글은 상소를 쓴 배경에 이어 폐습을 고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이 없으면 주장은 공허한 말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방법의 방법으로서 하부 항목을 두었다.

먼저 폐습을 고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여 통치의 근본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조직이든 지도자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거나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의 도덕성을 매우 중시한다.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라. 정부 각료의 임명에 있어서 도덕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는지를. 청문위원들이 주장하는 잣대 그대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도덕성을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지만, 적어도 남의 도덕성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도자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

14 도학(道學): 성리학 또는 성학의 다른 이름

선생이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는 이가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주장한 말은 논리상 다소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지도자의 자세와 행동을 정확히 지적했다고 본다. 여기서 '어질다'로 옮긴 원문은 공자가 주장했던 인(仁)이다. 어느 쪽이든 오늘날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이다. 그냥 착하다거나 인간답다고도 옮길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 형식적으로 도덕성의 총칭 정도로 말하기도 한다. '의롭다'는 말은 의(義)를 옮긴 말인데, 공자의 인(仁)에 이어 맹자가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원래 일의 마땅한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정의(正義)에 가까운 말이기는 하나 꼭 일치하는 말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인과 함께 마음의 덕과 인간의 본성으로 여겼다.

사실 선생이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한 말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큰 뜻을 세우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큰 뜻도 제시하였는데 그 큰 뜻이란 임금의 의향 곧 군주의 마음이 지향하는 것으로서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은 다른 저술에서도 학문의 목표를 성인이 되기를 기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리학이 추구하는 학문의 목표이기도 하다.

두 번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공부로서 학문인데 성리학에서 학문의 도통(道統)으로서 삼는 요임금 · 순임금 · 문왕 · 무왕과 주공(周公)과 공자(孔子) · 맹자(孟子)에 이어 북송의 다섯 학자인 주돈이(周敦頤) · 소옹(邵雍) · 장재(張載) · 이정(二程: 程顥와 程頤), 그리

고 주자로 불리는 주희(朱熹)로 이어지는 학문, 곧 성리학을 공부하는 일이다. 바로 "우리의 도(道)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다만 아래에서 높지 못한 성현(聖賢)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라는 말은 북송의 다섯 학자와 주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니까 성학 또는 도학으로서 성리학을 공부하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임금은 좌우에 어떤 신하가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정치가 잘되거나 못되기 때문이다. 주위에 간신이나 환관, 그리고 후궁 등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려서 충직한 신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면 나라의 정치가 타락하기 때문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원형이 실권을 장악했던 때의 정치적 난맥상을 거울삼아 말한 것 같다.

선생의 이런 주장은 오늘날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료,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법관,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지도자가 변변치 못했을 때 나라나 기업이나 해당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 지도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더 나아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의 면면을 보라. 선생의 주장에 따라 그것만 살펴보아도 그 지도자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회사원이라면 우리 회사 경영자의 도덕성 나아가 경영철학과 비전,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회사의 장래를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志在仁義하면 則爲堯舜하고 志在假仁하면 則爲五霸하고
지 재 인 의 즉 위 요 순 지 재 가 인 즉 위 오 패

志在逞慾하면 則爲桀紂니라.
지 재 령 욕 즉 위 걸 주

» 어휘 풀이

志: 뜻. 마음이 지향하는 것(心之所向)으로 곧 의향을 말함/在: ~에 있다/仁: 어질다/義: 의롭다/則: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爲: 되다/堯舜: 요임금과 순임금/假仁: 힘으로서 인을 가장한 것(以力假仁)을 霸라고 하였는데, 假仁은 그것의 준말로 맹자가 한 말/五霸: 전국시대 다섯 패자/逞: 즐겁다/慾: 욕심/桀紂: 걸왕과 주왕.

» 문장 구조

1. 전체 문장 구조는 단순하다. 곧 '~하면 ~하다'는 조건과 주절의 곧 '志在仁義, 則爲堯舜', '志在假仁, 則爲五霸', '志在逞慾, 則爲桀紂'라는 세 개의 문장이 병렬되어 있다.
2. 조건절의 주어와 동사는 각각 志와 在이고, 주절의 주어는 임금으로서 모두 생략되어 있고 동사는 모두 爲이다. 堯舜 · 五霸 · 桀紂는 모두 고유명사로서 仁義 · 逞慾은 추상명사로서 假仁은 명사구로서 모두 보어로 사용되었다.
3. 문장의 형식은 모두 주어+동사+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영어의 2형식 문장과 유사하다. 곧 동사인 在와 爲가 仁義, 堯舜 등의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동사이다.
4. 의역하면 "임금의 의향이 仁과 義를 실천하는 데 있으면 堯舜이 될 수 있고, 의향이 인과 의를 빌려 겉으로만 실천하는 척 하면 五霸가 될 수 있고, 의향이 즐거움과 욕심에 있으면 桀紂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 해석

의향이 인과 의에 있으면 요순이 되고, 의향이 인을 가장하는 데 있으면 오패가 되고, 의향이 즐거움과 욕심에 있으면 걸주가 된다.